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68> 소동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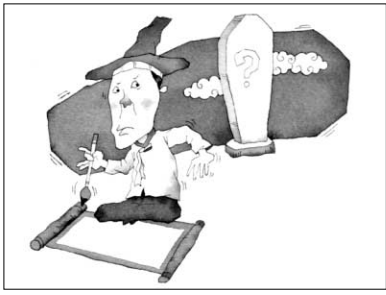
소동파가 대각회연(1009-1090)선사의 비문을 지을 일이 생겼다. 비문을 쓰려면 그 사람의 행장을 잘 알아야 한다. 드러난 공식적인 행적 말고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수집할 수만 있으면 내용이 훨씬 짙게 된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남의 입을 통해 알아야 할 수 있다. 더구나 회연 선사는 입이 매우 무거웠다. 영종임금이 선사에게 손수 조서를 내 어떤 절이건 골라서 마음대로 주지를 하라고 했으나 사양하고서 작은 절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참요(參謬 ?~1106)라고 하는 운문종 승려가 그 일을 동파에게 귀띔해 주었다. 하지만 남의 말만 믿고 함부로 비문에다가 올릴 수는 없는 일이다. 직접 찾아가서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비문에 한 구절 넣고 싶다"고 확인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그런 사실이 없다"였다. 선사 입적후 유품

소멸된다고 했다. 마치 눈 먼 사람이 홀연히 눈을 뜨듯 저절로 밝게 깨달아, 이때가 되면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그는 늘 일과 수행을 함께 한 재가의 선지식이었던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금강산을 그렇게도 애타게 그리워했다고 한다.

"원컨대 고려국에 태어나 한번이라도 금강산을 보았으면..."하는 발원을 했다고 하니 지금쯤은 금강산 관광단에 끼어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이미 다녀갔을까?

그의 남동생인 소철(蘇徹)과 여동생인 소소매(蘇小妹)의 한 마디도 귀담아 들을 것이 있다. 불인선사가 금강산에 살면서 두 형제와 서로 자주 왕래하였는데 동생 소철이 선사에게 이런 시를 보내왔다. **굵은 모래를 시주해도 부처님은 기꺼이 받으시고/ 돌멩이를 공양해도 스님은 싫어하지 않는구나.**



늘 절제된 생활하며 수식관 수행에 몰두

누이동생 소소매의 '관음예문' 유명

을 정리하던 중 편지함 속에서 그 조서가 나왔다. 동파는 이렇게 탄식했다. "도를 얻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덕을 간직할 수가 있었는가?"

동파 역시 늘 수행인으로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 배가 고파야만 밥을 먹었고 배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았다. 더불어 수식관(數息觀)수행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산보를 한 후 속이 어느 정도 비게 되면 방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생각을 고요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내쉬고 들이쉬는 숨을 션다. 하나에서 열까지, 열에서 백까지를 세 수백에 이르게 되면 이 뜬은 우뚝해지고 이 마음이 고요해서 허공과 같아져 번거롭게 금기하고 다스릴 일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렇게 오래오래 하다가보면 한숨이 스스로 머물러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을 때가 나타나고 기술했다. 이때 이 숨이 팔만사천 털구멍을 통해 구름이 뭉치듯 안개가 일 듯하는 경지가 나타나면 무시하여 모든 병이 저절로 없어지고 모든 업장이

빈손으로 멀리서 오니 무엇을 요구하지는가/ 아무 것도 더하거나 보탬 것이 없구나.

철저한 무소유의 공(空)의 정신을 표현한 이 시를 받고서 불인선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일단 공부경지에 대해선 높은 점수를 주었을 것 같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씁쓸함을 숨기지 못했을 것이다. 재가자가 미리 알아서 무소유를 외치니 장맛비에 금강산의 기왓장이 무너져 흩어 큰 시주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집에 가서 화주하겠다는 마음은 싹 사라졌을 것 같다.

난행난제인 반면 누이동생 소소매는 가까운 이렇듯 허공과 같아져 번거롭게 금기하고 다스릴 일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찬탄했다. **해내는 고해중생 건져주시려 연꽃은 웃자락 무지개로 주옵시고 애욕으로 두 번 어든 중생 건져주시려 하늘어린 몸으로 바랄처럼 오시는...**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고정관념 비우는 것이 참선”

대호 스님에게 듣는 생활선

“오늘날의 사회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선(禪)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갈등의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선은 나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호 스님(제주 원영선원장)이 질문을 던지자 법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선'을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6월 15일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무기 관 중무원들의 모임인 '원우회'의 대호 스님 초청법회. 이 자리에서 대호 스님은 생활선에 대해 법문을 했다. 생활선에 대한 궁금한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 요즘 '웰빙 라이프'가 확산됨에 따라 참선을 웰빙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려는 경우는 많은데 바람직한 것인가? - 잘 살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는 잘못 살고 있는 '나'가 존재해 있는 것이다. 잘못 사는 나, 불만족의 나, 한을 품은 나를 고정해 놓고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완전한 그런 나를 자신이라고 단정하고 또 다른 나를 찾는 꼴이 된다. 그런 것은 참선이 아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생각도 이는 자신의 가슴에 미혹한 사람이라는 것을 못 보는 것이 된다. 자신을 깨달아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선의 세계다.

▲ "나"를 버리라는 말 속에는 욕심을 버리라는 의미가 들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활인이 욕심을 버리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 "나"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고 속는 것이다. 순간적인 허상을 '나'라고 보고 살기 때문에 살 자체는 잠재된 위기심에서 재물과 권력 보살것들은 명성에 목달라하고 이를 의지처로 삼게 되는 것이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왜 일해야 하고, 누굴 위해 사느냐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거기에는 늘 '나'라는 존재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된다. 이것을 놓으라는 것이다. '나'에서 벗어나야 하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요 참선이다.

▲ 길을 갈 때 간다는 생각마저도 놓으라 하는데, 그러면 목표의식 없이 현실에 만족하고 살라는 것인가?

- 간다는 것 자체가 목표와 작용이다. 독서할 때 다른 생각이 글을 읽는다. 책을 잘 읽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독서 삼매를 방해한다. 읽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을 때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다. 가되

간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책을 읽되 읽는다는 생각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없어지며, 생활과 공부 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된다.

▲ 생활에서 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생활 속에서 효과적인 참선수행 방법은 무엇인가?

- 참선은 긴장하고 무엇인가를 특별히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잠 안 자고 먹지 않고 참고 견디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용맹정진으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불교를 잘 알고 경전을 많이 읽고 외우고

무엇을 하든 '나'에서 벗어나는 것이 수행 편안하고 흥분하게 '내려놓는' 연습을 철저하게 '실리적'...생활과 하나돼야

지식이 뛰어나야 깨달는 것이 아니다. 그와 정반대다. 선입관이나 기존관념, 알고 있는 것을 펼쳐버리는 것이 참선이다. 법문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담고 있는 고정관념을 비우는 것이 참선이다.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관념을 버리는 것이 바로 생활선이다.

자기 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왜 지키려고만 하나. 사람들은 천근 짐을 지고 산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눈을 빼앗긴다. 참선은 천근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편안하고 흥분하게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된다. 참선은 철저하게 실리적인 것이다.

▲ 참선은 철저하게 실리적인 것이라 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참선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말하는 것인가?



대호 스님이 '원우회' 회원들에게 법문을 하고 있다.

- 참선을 스트레스 해소와 육구 성취를 위해 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이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참선은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한 노력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만큼 값진 투자도 없다.

하루에 5분 10분 참선을 해서 자기를 바로 보게 된다면 이보다 더한 가치를 어디에서 찾겠는가. 그렇기에 참선은 가장 실리적인 것이다. 스트레스나 정신적 고통은 정진하는 가운데 저절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참선의 궁극이 아니다.

은 활구(活句)참선이라고 한다. 활구 참선은 출발과 배경이 전혀 다르다. 참선을 통해 화두의심을 하면 할수록 잘못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생기고 여기서 발심과 신심이 생긴다. 화두의심만 바로 하면 잡다한 길은 저절로 정리된다. 염불선은 참선으로 나아가는 방편선이다.

▲ 짧은 기간 안에 화두의심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 화두참선이 화두를 의심해서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화두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가 곧 깨달음의 출발이다. 이 화두를 의심하는 것은 '순간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나'를 자신으로 보고 속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순간순간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리·사진=한명우 기자

아빠따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빠따 센터
아빠따 마스터 김화권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나 말로 당신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형**
서울시 종로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부처님 당시 제자
500나한 불사 검 1000일 기도

오백나한 검 일기기도를 불사 받아 수도권 최고의 나한전(羅漢殿)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라한은 응공(應供), 응진(應眞), 무학(無學), 이악(離惡), 불생(不生) 등으로 불리우며 성문(聲聞)들 가운데 최고의 성자 육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 열반을 성취한 성자를 일컬으며 복덕이 구축하고 신통 자재하여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고 하였습니니다.

우리네 인생,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범 만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한 불사도 이 생애 한번 인연 닿기 힘든 불사입니다. 어렵게 만난 인연들 소중이 성취하시고 그 공덕으로 가정의 화복과 건강, 사업성취, 소원성취, 학업성취 나아가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하안마음선원 덕봉합장
031)707-0108
분당선 이매역 1번출구 SK주유소 옆 도로로 5분거리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범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범비는온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후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범비는온곳 동해사
033)672-2900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① 맥진법 ② 사암침술반 ③ 즉효요법반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배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2006. 7. 5 (수·목요일 주·이간반)
토·일요일: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화(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어,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 과정 맥진전문가 과정

사암침술 학회
• 서울: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문의: 02)747-9136. 011-307-2975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급력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山寺)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山寺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오르지않은 **山寺 참꽃 조청** 1.2kg
이월,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체액의 해소, 신경조율, 향기(화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민건강을 세번부터 100% 천연으로 만드셨습니다
山寺 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 × 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몰랐던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 금 처: 농협 727077-52-056761(원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